

<2013.06.12.>

새만금일보



고창군 국내 첫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

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쾌거... 운곡습지·선운산도립공원 등 핵심지역 연결해 문화·생태 관광지로 거듭나



새 만금일보

세계에서 가장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 지역 고창.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
첫 생태환경도시로의 변신을 꿈꾼다.

고창 전역 생물권보전지역지정... 국내 최초 사례

고창군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진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등재하는 제도다.

고창은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 신안·다도해(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포함), 광릉수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됐다.

특히 이번에 등재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군 전역

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고창부안 랍사르습지 등 주요 보호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사구 등을 완충지대로 기타 농경지와 주민 거주지역을 전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민수익 향상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서 앞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 습지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동립저수지 야



새 만금일보

풍천장어·복분자 등 특산물 브랜드화 주민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발전 기여 기대 세계 네트워크 참여로 국제적 위상 제고

생동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해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방침이다.

또 수박, 풍천장어, 복분자, 오디, 팥콩, 죽염 등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수익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수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특산물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이 되면서 인지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파워 강화로 높은 가격에 판매돼 주민 소득증대에 크

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험마을·생태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등으로 마을 주민 주도형 사업이 활성화 되고 관광명소로서 지명도가 상승해 지역이미지 개선과 함께 군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며 “향후 21세기 신 성장 동력 모델로서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을 분리하는 보호지역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세계 속에 전북도와 고창군의 명예를 드높여서 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 군민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지정 이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문화 및 생태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